

익산지역 집중호우 피해기업 지원

전북은행, 총 300억원 규모
피해사실 신고 발급받으면
최대 1억원 범위 내 지급



전북은행 본사 전경.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익산지역 집중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및 당행 거래 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북은행의 이번 금융지원은 최근 계속된 집중 호우로 인해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익산시 전동시장 2곳에서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신속한 피해 극복을 위한 지역 거점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결정됐다. 지원대상은 행정 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신고확인 서류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최대 1억

원 범위 내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만기도래 시 만

기연장이 가능하며 최고 1.0%까지 금리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지난 12일부터 익산지역 전북은행 5개 영업점(익산지점, 인화동지점, 영동동지점, 원광지점, 익산공단지점)에 '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전담창구'를 설치해 수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의 빠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은행 서한국 은행장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대출 지원 및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 거점은행으로서 전북은행이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13일 장수농협과 함께 장수농협 하나로마트 북부점에서 장수군 로컬푸드 출하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농가조직화 교육을 실시했다.

장수에 '로컬푸드 새바람'

전북농협·장수농협, 참여능가 조직화 교육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3일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과 함께 장수농협 하나로마트 북부점에서 장수군 로컬푸드 출하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농가조직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출하농가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와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적절한 가격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시설토양 및 양분관리, PLS 제도 및 안전한 농약사용, 관계 에너지를 높이는 소분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농협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자를 3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참석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서는 유튜브로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

스를 제공했다. 이번 영농활동으로 실시간 시청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영상을 유튜브 채널 전북농협 로컬푸드에 등재할 예정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로컬푸드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과정이 농산물 출하 기본원칙을 준수해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준 조합장은 "로컬푸드는 가장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이라면서 "불모지인 장수군에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식량작물 노지 디지털 농업기술 어디까지 왔나?

자동 물·비료 관리로 노동력·농업용수·비료량 ↓... 생산량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지속적 인 농촌 노동인구 감소와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디지털농업기술인 자동물관리시스템과 자동관개시스템을 개발 보급에 힘쓰고 있다.

자동물관리시스템은 수분 감지기(센서)와 제어기, 배수관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거나 빼는 기술이다. 자동관개시스템은 땅속 관으로 물과 비료를 동시에 공급하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들은 설치와 관리가 간단하며, 현장에 적용했을 때 노동력과 농업용수,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농진청은 자동물관리시스템 실험을 위해 물을 주는 '지중점적 자동관개제어시스템(2018년)', 물을 빼는 '저비용 무굴착 땅속배수기술(2017년)'을 개발했으며, 물주기와 물빼기가 동시에 가능한 '관·배수 통합 자동제어 물관리기술'은 개발 중이다.

지중점적 자동관개제어시스템은 땅 속에 관을 묻고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

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 토양 수분 관리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물 수량은 20% 늘고 농업용수는 22%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저비용 무굴착 땅속배수기술은 일반 트랙터에 매설기를 연결해 주행과 동시에 배수관과 충전재를 묻는 기술이다. 사용자는 저렴하고 손쉽게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물 수량이 27% 늘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지중점적 자동관개제어기술은 전국에 44헥타르(22개소), 저비용 무굴착 땅속배수기술은 42헥타르(21개소)에 적용, 설치돼 있다. 지중점적 자동관개제어시스템은 지중점적관 매설기 제작업체 3곳, 지중점적관개 기반조성 업체 5곳, 지중점적관개 제어기 관련 2곳 등 총 10곳에 기술이전 됐고, 저비용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은 총 2곳에 기술이전, 시범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자동관개시스템은 땅속에 묻은 관으로 물과 비료를 동시에 공급하는 기술로, 개발이 완료돼 보급을 앞두



지중점적 자동관개 제어기술을 적용한 밭과 무관개 밭의 비교.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에서 자동관개시스템을 적용하면, 노동력은 41%, 비료 투입량은 17%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관개시스템이 보급되면, 적정량 비료주기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양분감지기를 개발해 실시간으로 토양 양분상태를 확

인하고, 자동으로 필요한 만큼 비료를 주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박기도 과장은 "자동물관리시스템과 자동관개시스템 등 노지 디지털농업기술을 농가에 빠르게 보급해 노동력과 농업용수,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생산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양충모 새만금청장, 수변도시 공사 현장 찾아 안전 상황 점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13일 새만금수변도시 공사 현장을 찾아 건설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양 청장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건설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개인 안전을 비롯한 사석 축조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도입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 신속하게 대응해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양 청장은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수변도시가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조성 사업인 만큼, 철저한 공중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수변도시의 새만금 2권역(복합개발용지) 6.8㎢에 약 133,000억을 투입해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호성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8일 사업소 MZ세대 직원과 안심만족토크(安心MZ talk) 행사를 가진데 이어, 13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MZ세대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안심만족데이(安心MZ day)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MZ세대 직원과 함께하고 있는 박지현 사장(가운데).

MZ세대와 '안심만족 공감토크'

전기안전공사, 안심만족데이 행사 열어... 조직문화 혁신 '한마음'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조직문화 혁신과 업무 개선을 위해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자) 직원들과의 소통 확대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8일 사업소 MZ세대 직원과 안심만족토크(安心MZ talk) 행사를 가진데 이어, 13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MZ세대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안심만족데이(安心MZ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사의 새 경영이념인 '안심(安心)경영'과 MZ세대를 뜻하는 '민지'를 반쪽으로 바꿔 기존 세대와 MZ세대 간의 소통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안심만족 제도는 본사 직원은

안심만족데이(安心MZ day) 사업소 직원은 안심만족토크(安心MZ talk), MZ세대가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SMS활용법 등을 가르치는 안심만족업(安心MZ up)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MZ세대 직원들은 성과주의의 승진 등 성과보상 체계 확대와 휴직제도 신설, 수기문서 전산화 등 회사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지현 사장은 "MZ세대의 여러 생각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김경진 노조위원장은 "기성세대에서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보며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 순창지부, 창립 60주년 기념 나눔 릴레이 마을을 잇다'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김현수)는 13일 순창군 장애인연합회(회장 최기순)를 찾아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 비용을 잇(Eat)다를 실시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농협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며 진행되고 있는 나눔 릴레이 행사의 일환으로, 지역 소외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탕 150인분을 준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중기청, 오늘부터 해외규격인증 일반·심화교육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해외규격인증 획득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 및 심화교육을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에서 실시한다.

14일 개최되는 일반교육은 중소기업의 주요시장인 아시아 국가 전기전자 인증 획득 실무교육이며, 15-16일 양일간 개최되는 심화교육은 CE 기계

기술문서 작성 실무교육이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 시 평가점수 1~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대상은 해외규격인증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관계자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center.go.kr)에 기업회원 접속해 수출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LX-한컴일렉트릭스, 디지털트윈 활성화 데이터 구축 협력

LX한국국도정보공사(사장 김정렬)와 LX공사(주)한컴일렉트릭스가 디지털트윈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수집에 나선다.

LX공사와 (주)한컴일렉트릭스는 지난 12일 LX 본사 7층 회의실에서 '도시문제 해결형 디지털트윈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컴일렉트릭스는 IoT 기반의 실내·외 데이터를 수집, LX디지털트윈 플랫폼 연계를 위한 솔루션(No IIM Server)을 지원한다.

LX공사는 한컴일렉트릭스의 NoIIM Server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트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공유 기반의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한다.

LX공사 최승욱 공간정보본부장은 "디지털트윈 전국 확산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창출하고,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 접목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